

재정지원제한해제 공식발표, 그 다음은?



▲ 지난 9월 7일 진행된 한성대신문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처장단이 재정지원제한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왼쪽부터 조규태 입학홍보처장, 이형용 학생처장, 조세홍 교수처장, 전주상 기획협력처장)

8월 25일 본교는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벗어났다는 가동보를 받았다. 정부는 8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부실 등급(D, E)을 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컨설팅을 실행했다. 교육부는 1-3영역으로 각 대학을 평가했다.

그 결과 본교는 이번 교육부 컨설팅 평가에서 '완전해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교직원,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발표는 지난 9월 7, 8일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 발표는 차후에 있을 2차간담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교가 짚어진 3년의 과제들

지난 1월 11일 본교는 교육부에 이행과제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컨설팅 평가를 위해 학사구조개편안, 재정분야 개선, 학생지원 등 향후 3년의 계획을 작성해놓은 본교의 이행계획서다.

의견서에 교육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상세한 실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본교는 학사구조개편안에서 교육부의 요구사항으로 '특성화 사업과 연계한 정원조정'을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본교는 각 학과의 정원과 주-야간인원을 교육부의 요구에 맞춰 조정했다.

또한 재정분야에서는 교육비 환원율과 산학협력비, 지원금사업비를 상향 시키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맞춰, 3년의 계획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학생지원 및 교육체계개선 측면에서는 교사확보율, 수업관리, 학생평가의 합리성, 장학금 지급률 향상, 졸업생 취업을 개선,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시스템 개선, 취·창업 지원,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을 요구 받았다. 학교는 앞의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 비상관 완공, 전자출결시스템 개발, 비교과DB시스템 및 상담센터 운영

등의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2주기 대학평가, 본교의 대비책

2015년도에 실행된 대학교구조개혁평가는 2022년까지 1주기(2014~2016), 2주기(2017~2019), 3주기(2020~2022)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당초 2018년으로 계획했던 '2주기 대학교구조개혁평가'를 2017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하여 처장단의 전주상 기획협력처장은 "평가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평가가 앞당겨진다는 것을 염두해 준비하고 있다"며 "추석이 지나고 2주기 대학

평가를 대비하는 2기 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2주기 대학평가의 평가지표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2기 위원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지원제한 해제에 대해 처장단은 "이번 교육부컨설팅 결과는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왔다. 충실한 이행을 통해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이다. 하지만 바뀌는 2주기 평가에 대비해서 보완해야할 부분은 아직 많이 남았다.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혜미 기자 hzm1324@naver.com

지면안내

보도
총학생회,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나 02

사회
청년수당을 통해 본
청년정책의 행방 03



기획
생명의 무게를 바로잡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04



사람사
파티세
김예슬씨를 만나다 05



학술
우리가 몰랐던
달의 이면들 06

문화
인디문화의 구세주,
크라라우드 펀딩 08

동정란

문귀선(영어영문학부)교수
문 교수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대학에서 열리는 'Hansung-Geneva Workshop on Ellipsis and Illusion II'를 진행한다.

9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폴란드 Adam Mickiewicz University에서 개최하는 제4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Linguistics of English 2016학술대회에서 "New Horizons in Ellipsis in English: Its Syntax, Semantics, and Language Processing" 워크숍을 주관하고, 두 편의 논문 「Semantic Licensing of Corrective Fragments」와 「A Non-repair-by-ellipsis Approach to Fragments」를 발표한다.

손경연(융복합교육과정)교수
손 교수는 저서 『취업의 정석 : A부터 Z까지』(한성대출판부, 2016)를 발간했다.

나은미(사교외표현교육과정)교수
나 교수는 지난 9월 3일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한국적문화회 영화를 활용한 성찰글쓰기'라는 주제로 기획 발표했다.

2016년 2학기 블랙보드 시범운영, 현재 진행상황은?

내년 1학기부터 본교 교수들은 한 강좌 이상에서 블랙보드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적어도 한 강좌 이상에서 블랙보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보드란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한 종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활동 전반을 온라인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블랙보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강의는 집에서, 과제는 학교에서'를 지향하는 '플립러닝'과 같은 혁신적인 교수법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블랙보드를 통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으로는 토론 활동, 과제 제출, 팀 프로젝트, 시험 응시, 일정 알림, 성적확인 등이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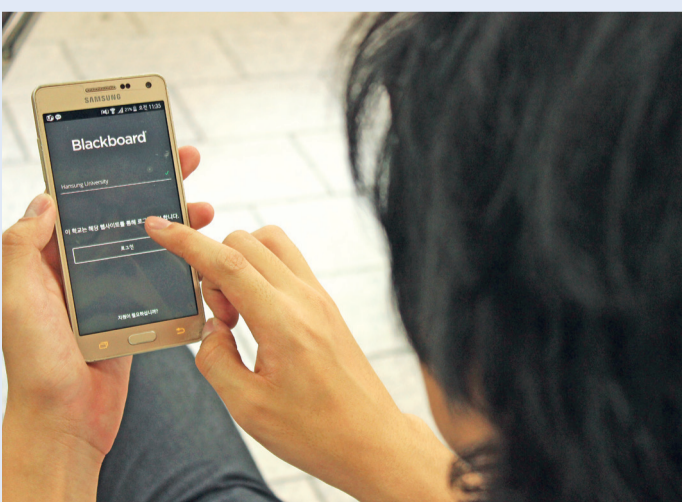
그 강의에 맞게 교수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학습할 수 있으며, 과제물을 다운받거나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 점수를 확인한다. 그리고 토론, 팀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 학생들은 개설된 방에 댓글을 달는 형식으로 참여하며, 교수가 모니터링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블랙보드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은 학과 학습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교는 블랙보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이번 학기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16명의 교수로 이루어진 시범운영단이 실제로 이를 활용한다. 교육역량개발센터는 이들과의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을 수집하고 이

다. 또한 4명으로 이루어진 학생 모니터링단이 학생 측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파악 중에 있다. 이에 대해 김세영(교육역량개발센터 매체개발팀) 블랙보드 담당자는 "시범운영단의 활동을 통해서 한성대학교만의 블랙보드 사용 모델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보드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박승록(경제학과)교수는 그가 만든 PPT자료 '블랙보드 도입과 관련해서'에서 '블랙보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학습준비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블랙보드 도입의 목적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더불어 사용법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블랙보드의 기능은 위의 기능 이외에도 많다. 따라서 이



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세영 담당자는 "쉬운 시스템은 아니지만, 잘 활용하면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말하며 "1차적으로는 교수를 대상

으로 한 블랙보드 교육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학기 본격 도입을 위해 안내서 또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현 기자
ehdvk6392@hansung.ac.kr

총학생회, 학생들 목소리에 귀 기울였나

작년 11월 24, 25일 동안 진행된 선거에서 총학생회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이하 너.목.들)는 핵심공약 ▲A학점 비율 30% 복구, ▲대학평가 후속계획 공개, ▲전공이수학점 정상화와 기타공약 ▲한성, 마음의 편지, ▲백지 공약 총 5개의 공약을 내세웠다. 임기가 시작된 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그 공약들이 얼마만큼 이행됐는지 알아보았다.

A학점 비율 원상복구

핵심 공약 중 하나인 'A학점 비율 30% 복구'는 임기 시작 전인 작년 12월 14일 이행되었다. 손성민(경제 4) 총학생회장은 한성대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A학점 비율이 대학교 구조 개혁 평가 지표에 있는가를 교육부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그런 지표는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2월 15일 본교 홈페이지 낙산의 메아리(이하 낙메)를 통해 "우리학교 재학생의 성적평가 A학점 비율이 20%에서 30%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확인했다"며 "총학생회는 학점 비율 복구를 공약으로 정한 배경에 대해 학생 지원팀에 설명을 했고, 설득을 했다"고 공약이 이행된 과정을 전했다.

배일에 가려진 대학평가 후속계획

현재까지 본교의 후속계획 관련 사항들은 대학교구조개혁 간담회에서 공개된 사항을 제외하면 공개된 것이 없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공약 이행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임시적인 안들을 알려서 학생들 사이에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며 "학교 측에서 수립단계에 있는 사



▲ 공약이행과 관련하여 한성대 신문사와 인터뷰 중인 손성민 총학생회장

항이므로 공개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 이유를 전했다.

정상화 된 전공이수학점

'전공이수학점 정상화'는 올해 1학기 시작과 함께 이행되었다. 단과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재 학점은 90학점에서 약 78학점까지 낮아 졌다. 그러나 공약에서 언급했던 건국대학교의 학점(64)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점(70)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손 회장은 "지금 학점도 학생들에게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공백상태인 '마음의 편지'

'한성, 마음의 편지' 공약은 익명으로 보장되는 온 오프라인 채널을 개설하여 주요 문제에 대해 본교의 학생들과 논의하고, 총학생회의 진행상

황을 알리겠다는 내용이다. 출마 당시 총학생회는 "학내에 주기적으로 공백이 있는 대자보를 설치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적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백 대자보는 설치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올해 1학기 때 트랙제가 발표되는 등, 갑작스러운 변화들로 학내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덧붙여 "이번 학기에 기획국이 이를 맡아 진행할 것이며, 한 달에 한번 정도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총학생회는 "낙메 커뮤니티에 익명게시판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았다. 손 회장은 "SNS를 통해 충분히 의견 수렴이 가능한 상황이고, 낙메 자체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다"며 익명게시판을 개설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행중인 백지 공약

'백지 공약'은 '한성, 마음의 편지'로 제안된 것들 중에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1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공약은 현재 꾸준히 이행 중이다. 대표적인 예로 '주차장 사용료 문제'가 있다. 총학생회는 지난 1일, 주차장 사용료 문제에 관해 '정기권 운용과 가격 등을 고려하도록 학교 측에 요청했다'고 페이스북 '한성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그리고 "아는 이전부터 많은 학우들이 직·간접적으로 건의한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권리와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hansung.ac.kr

#우리학교 #타임라인

제9회 한성대 영상제 개최 예정

'제9회 한성대 영상제가 상상력교양교육원 기초교양교육과정 주최로 11월 4일 미래관 DLC에서 개최된다. 영상공모는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9월 12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10월 25일 상영작을 뽑아, 영상제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영상은 자유주제로, 15분 이하의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CF, 뮤직비디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영상제에서는 대상 1팀, 1, 2, 3등 각 2팀, 장려상 3팀을 선발한다. 상금으로는 대상 100만원, 1등 각 50만원, 2등 각 30만원, 3등 각 20만원, 장려상 각 10만원이 수여된다. 영상제 담당자 정원준(기초교양교육과정) 조교는 "청년들의 꿈을 영상으로 펼치는 축제의 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영상제 감독관 안건형(기초교양교육과정) 강사는 영상 평가 기준에 대해 "주제, 시가성, 스토리, 영상 기술에 대해 평가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영상제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혜미 기자 hzm1324@naver.com

제12회 공학경진대회 개최

오는 9월 27일~28일, 공학교육개발센터에서 주최한 공학경진대회가 개최된다. 공학경진대회는 올해로 12회를 맞이한다. 낙산관 3층 체육관에서 참가 학생이 만든 작품 및 논문을 발표한다. 대회 첫째 날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은 공과대학 재학생에 한하고 있지만, 공과대 학생과 팀을 이룬 경우에는 타 전공 학생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팀을 이룰 경우 최대 5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안성희(공학교육개발센터) 연구원은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통해 본인의 아이디어를 다른 작품들과 융합해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이유정 기자 snrn1003@hansung.ac.kr

정보공개 포털 등록, 사립대학 투명성 향상될까?

오는 10월 중으로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학교 측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교육부와 협의의 통해 이달 중으로 156개의 사립대학을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하여, 10월부터 포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것으로, 사립대학도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정보공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나, 지금까지 사립대학에 대한 정보공개는 행자부 포털이 아닌, 이메일·전화·팩스 등을 통해 학교 측에 직접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은 신청서에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점과 '청구 자체가 학교 측에 의해 무시될 수도 있다

는 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10월부터 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한 청구 방법이 가능해지면서, 사립대학의 정보공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받은 사립대학은 국익을 해치거나 신체·생명을 해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8가지 비공개 사유가 아닌 한, 보유·보관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 법령 상에 불이행시의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교육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인근 대학인 고려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국민대학교에서도 정보공개 청구제도와 관련하여, 학생들과 학교 측 간의 갈등이 있었다.

고려대의 경우, 올 2월 총학생회가 민자 기숙사의 설립·운영의 적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학교 측은 민자 기숙사 설립 및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없도록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회신했다. 성신여대의 경우, 올 6월 학내에 생긴 싱크홀과 관련하여, 학생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학교 측으로부터 한 달이 넘도록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국민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주호준(국민대 입산생명공학과 4) 학생은 작년 12월에 학교 측으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 메일을 받았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6개월간 37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사실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사례인 인천구청과 청구인 간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천지법이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가 생겨남에 따라(2015구합51228), 학교 측의 주장은 타당성을 잃게 되었다.

주호준 학생은 "대학이 점차 기업화되어 감에 따라, 타 대학과의 경쟁 구도가 생겼고, 이로 인해 학교 측이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교육은 엄연히 공적 영역이므로, 사립대에서도 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김조은 간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7호에 해당하는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는 정보 공개시 현재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학교 측을 상대로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승소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명확한 교육부 지침이 필요하며, 정보공개청구 제도 자체에 대해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식 기자 meanchic@naver.com

2016학년도 한국어과정 가을학기 입학식 열려

지난 8월 29일, 미래관 DLC에서 한국어과정 가을학기 입학식이 진행됐다. 이번 학기에는 총 42명이 입학했다. 입학식에서는 우리 학교 소개 영상 상영 및 가을학기 학사 일정안내 등이 진행됐다.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과정은 쿼터제로 네 개의 학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다. 정규 수업이 끝나면 사물놀이 등 다양한 취미반이 개설되어 있다. 언어교육원에서 일정기간 수업을 듣고 한국어 실력이 향상된 외국인 학생은 우리 학교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안윤순(언어교육원) 실장은 "꾸준히 신입생이 증가 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기에 입학한 오기보(중국) 학생은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고, 한국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라며 우리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기대했다.

이유정 기자 snrn1003@hansung.ac.kr

IPP 장기현장실습 성과발표회 개최

지난 8월 31일,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IPP 장기현장실습성과 발표회'가 열렸다. 이상한 총장, 이종훈 이사장, 각 학부 학과장을 비롯해, 이번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등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IPP 장기현장실습은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4개월 인턴제도다. 1학기에는 총 30개 기업, 65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2학기에는 총 41개의 기업, 170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다우기술 M커머스사업팀에서 실습한 채윤정(경영 4) 학생은 "4학년 마지막 학기를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했다"며 참가동기를 밝혔다. 또, "실습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 까지 한성대학교 학생이라는 소속감과 긴장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이유정 기자 snrn1003@hansung.ac.kr

11월로 미뤄진 2차간담회, 세부 일정은 아직 미정

본교 총학생회는 5월 18일에 열린 '학사구조개편 최종안'에 대한 1차간담회에서 2차간담회를 약속했다. 또한 지난 한성대신문 515호 인터뷰에서 손성민(경제 4) 총학생회장은 9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 2차간담회를 열기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인터뷰를 통해 손

회장은 "9월 예정이었던 2차간담회가 10월에서 11월 중으로 미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2차간담회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 조세홍 교무처장은 "9월, 10월에 추석, 축제, 체육대회 등의 행사가 많아 일정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는 "간담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열 예정"이라

며, "간담회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간담회 내용에 대해 이형용 학생처장은 "컨설팅 평가 결과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한 후, 학생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 주상 기획협력처장은 1차간담회에서 학생들의 질문이 많았던 트랙제도에 대해 "개편안만 나온 상태이

기 때문에, 2차간담회가 언제 열리는 지에 따라 대답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트랙제도는 TF(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트랙제도의 진행 정도를 밝혔다.

박혜미 기자 hzm1324@naver.com

청년수당을 통해 본 청년정책의 행방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4일, 서울시가 청년 2,831명에게 청년활동지원금(이하 청년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협력이 부족했다며, 현재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청년수당은 청년 3000명에게 6개월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중 심사를 통해 대상

을 선정한다. 신청에는 건강보험료, 최종 학력졸업증명, 고용보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를 기반으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판단한다.

또한 선정심사위원회가 활동계획서의 지원동기,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을 심사한다. 청년수당은 취·창업과 연관된 활동(구직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술학원·취업학원 비용 및 면접을 위한 교통비나 스터디 비

용 등)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지원금이 타당하게 쓰이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청년수당이 논란의 화두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청년수당은 고용정책에 어긋난다?

청년수당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청년수당이 고용정책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의 참여를 전제로 지원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경훈(청년이어는미래) 대표는 “고용정책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은 청년수당이 구직정책인지 복지정책인지 정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청년수당의 목적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구직정책이라면 청년들의 취업준비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지만, 6개월간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 기간을 늘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백 대표는 “복지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세대와의 사회적 협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협의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해 김주호(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청년보장제도 중에서 청년수당은 일부분이므로 고용정책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청년보장제도는 설자리(청년활동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일자리(뉴딜일자리, 챌린지 1000프로젝트 등), 살자리(청년1인가구 주거희망 두배 청년통장, 금융생활 지원 등), 놀자리(활동공간조성, 청년허브지원 등)로 나누어져 있다. 청년수당은 이에 속해있는 하위 정책 중 하나이므로 그 목적이 정확하다”며 청년수당이 고용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점을 설명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개인 활동을 포함한 현금 지급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와 복지 의존도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선정되지 못한 청년들의 의욕이 좌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은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실제 청년활동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의 지출계획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주거비, 교통비 등 생활에 당장 필요한 비용에 지출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실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청년수당은 현재 시범시행과정에 있다. 점차적으로 대상의 범위를 확장시키면 해결될 일”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우려에 반박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수당이 청년실업문제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닐 수 있지만

‘긴급한 처방’으로써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

이러한 청년수당의 논란 속에서 청년들의 공통적인 입장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백 대표는 “중앙정부가 만들어낸 청년 정책이 효용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해야한다. 실업률이 국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라며,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들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직업군이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사무국장은 “청년문제는 청년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하다. 어떤 청년 정책도 그 정책 하나만으로는 청년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중심의 일자리·산업정책, 지자체의 자체적인 지역일자리·지역산업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실업은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 분명하다. 청년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청년들의 구직과 실질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와 서울시 간의 힘겨루기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자식 기자 answltn15@hansung.ac.kr



재정지원제한해제 대학 5일 확정, 각 대학 희비 엇갈려

지난 9월 5일 교육부는 대학교소개혁평가 이행점검 끝에 재정제한해제 대학을 최종확정했다. 당초 결과는 8월 26일에 각 대학에 송부하였으나, 일주일간의 이의신청을 받은 후에 목록을 최종확정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교소개혁평가 결과 D+ 이하의 등급을 받은 대학들에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정부재정지원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재정지원제한을 시행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재정지원제한 해제 대학인 66개교 중에서 25개교는 모든 재정지원제한을 해제하는 ‘완전해제’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의 제한은 해제되나 정부재정지원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는 ‘일부해제’는 14개교에 부여되었다. 남은 27개교는 기존의 재정지원제한을 다음 구조개혁평가 때까지 계속 받는 ‘전면제한’ 대상이다. 다음 구조개혁평가는 2018년에 예정되어 있으니 전면제한 대상 대학은 ‘3년 연속 부실대’가 된다.

재정지원제한해제 대상에 오른 대학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들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충청도의 유명사립대학교인 청주대는 재정지원제한해제 목록에 오르지 못함으로써 ‘3년 연속 부실대’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이번 평가에서도 재차 ‘낙제’라는 고통을 받은 청주대는 이의제기 기간이 채 끝나기 전인 8월 28일, 총장을 비롯한 처장단과 교무위원 15명이 전원 사퇴했다. 또한 9월 1일 ‘학생언론연대’를 발족하여 교내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등 진통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곧장 9월 12일부터 시작된 수시모집에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학교들은 신입생들의 국가장학금 2유형이 제한되고,

구분	4년제 대학
완전해제 (10)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벌),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팽택대, 한서대, 한성대
일부해제(7)	꽃동네대, 극동대, 나사렛대, 유원대, 을지대, 중부대, 흥익대(세종)
전면제한 (15)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KC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대구외대, 한중대

구분	전문대학
완전해제 (15)	경기과학기술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일부해제(7)	김해대, 농협대, 동아보건대, 대경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
전면제한 (12)	경북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부 컨설팅 이행 심사 결과

학자금대출도 50~100%까지 제한된다. 또한 연속으로 부실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최악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 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강제폐교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2년 연속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대학교는 강제로 폐교할 방침이다.

5일 교육부는 ‘대학교소개혁 후속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입학정원을 2013년에 비해 4만 4천여명 줄였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까지 각 대학들이 줄이기로 된 입학정원은 5만 3천명이며, 이는 1주기 대학교소개혁평가의 목표치인 4만명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4

년부터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선제적 인원 감축을 목표로 대학교소개혁 정책을 진행하며 부실대학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인원감축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따라서 현재 교육부는 2022년까지 입학정원을 7만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당초 2018년으로 계획했던 2주기 대학교소개혁평가 2017년으로 앞당기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부의 행보에 대학가의 시름도 나날이 깊어갈 것 전망이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이 기자의 정치사건

도마 위에 올려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정부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얻기 위해 ‘인사청문회법’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과정이다. 국회는 이를 위해 13인으로 이루어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들은 교섭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회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후보자는 국회의 관련 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최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관련 인사청문회가 주목받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대법관·감사원장 등 국회의 동의를 통해 임명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검증과정이다. 공직후보자들이 공직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임명 동기가 필수적이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을 통해 질의가 이루어진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이 요청하여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 때문에 청문회는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 덕분에 청문회는 여야위원들의 날선 발언들이 오고가는 정쟁(廷爭)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문회에서 대부분의 후보는 탈세, 재산은폐, 비리 등의 불법행위는 물론 종교관·역사관 같은 개인의 사상과, 기부금과 같은 도덕성의 문제까지 전방위적인 검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검증 시스템에 의해 문창극 국무총리후보는 인사청문회 자리에 채 서보지도 못하

고 후보사퇴를 하게 되는 등, 인사청문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인성을 판가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청문회의 검증 시스템이 반드시 좋은 평가를 듣는 것만은 아니다.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느’ 채동욱 검찰청장처럼 정치적 이유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반정부적인 의원들의 ‘트집잡기’가 도를 넘어서서 개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단순히 망신주기가 목적인 막말에 이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또한 상대방의 도덕성을 지나치게 중요시해 막상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할 생각은 안중에 없는 주권전도의 현상 역시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인사청문회가 항상 절대적인 인사를 권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에 의해 국회의 임명동의안을 얻어야만 임명이 가능한 공직후보자들을 제외하면 후보자, 즉 장관과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는 권고 수준의 조윤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정부는 조윤선 후보자의 장관직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공직후보자가 과연 그 직무에 걸맞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심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정부와 국회가 정말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정치적인 싸움판이 아닌 엄중한 심사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생명의 무게를 바로잡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저는 가족인가요, 장난감인가요?”



사진출처 : Pixabay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배경과 한계, 그리고 의의

지난 해 1월 20일,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었다. 동물보호법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는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이다.

하지만 최근 강아지 공장 등 동물 학대의 심각성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8월 31일, 표창원 의원 및 63인의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까지 발의된 11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중 가장 많은 수의 의원이 참여한 만큼 가장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개정안

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47개 조항 중 14개 조항이 개정되고 6개 조항이 신설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동물 보호에 대한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개정안이 '신고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피해를 직접 진술할 수 없는 동물의 특성상 학대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는 동물을 '사물'로 간주해, 개인의 소유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의 '동물 소유 제한'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태다. 한편 소유 제한으로 동물을 몰수한다고 해도 이것이 동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몰수된 동물

들이 지자체의 소유가 되면 향후 입양 절차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 동물을 한 생명으로 인정하는 법안인 만큼, 더욱 세심한 개정안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더 많은 동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자유연대의 김영환 선임간사는 "동물을 사고파는 등 동물에 대한 법적 제재와 사회적인 인식이 하루 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 개정안 등을 통해 단계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의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부)

실제 사례를 통해 본 동물보호법 개정안

현재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가장 큰 허점은 긴급 구조가 불가능하고 동물 학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실제 사례와 연관 지어 알아보았다.

방치만으로도 동물학대죄 적용가능

지난 7월 26일 동물자유연대와 성남시는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강아지 한 마리를 구조했다. 강아지는 3개월이 채 안된 시베리안 허스키(슈기)였다. 상태를 보아 최소 일주일 이상 방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루라도 구조가 시급했지만, 제보를 받고 구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틀이나 시간이 지체되었다. 견주의 행위가 동물 학대로 성립하는 것에 대한 논의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인식의 차원에서는 동물 학대가 명백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발생한 문제였다.

현재, 동물보호법 8조에는 고의로 사료 또

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죽음에 관해서만 처벌이 가능할 뿐, 단순한 방치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다. 개정안에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거나 혹사, 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추가했기 때문이다. 만약 슈기의 견주에 대한 법적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 중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견주는 슈기를 방치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영환(동물자유연대) 선임간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상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정의가 불분명하다. 동물 학대에 대한 견주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방치하는 것 자체가 동물 학대에 성립한다는 개념이 개정안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는 권고사항이 아닌 필수사항

무엇보다 기존의 현행법에 대한 분석이 얼마나 이루어졌으며, 개정된 조항을 통해 동물이 '생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개정안은 강제성 부여, 처벌 강화, 자가 진료 금지 등을 통해 동물보호법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

▲ 축구가 아닌 금지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 및 적절한 사육·관리의 원칙 등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기존의 동물 보호법에서 '하도록 노력하여야'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하여야'로 변경했다. 대표적으로는 제3조에서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준수 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즉, 동물 관리에 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정의했다. 법안에 강제성을 부여해,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된 제49조의 경우, '동물 학대·유기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동물 소유 제한을 한다고 규정했다. 형량을 늘려 경각심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추가 피해 역시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자가 진료 금지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른 '자가진료법'도 개선 범위에 포함되었다. 기존의 수의사법 시행령에서는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를 '자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진료행위'로 규정했다. 때문에 자신 소유의 동물에게 외과적 지식 없이 수술하여 동물이 사망에 이르더라도 처벌받을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 제 11조에서는, '모든 개·고양이와 반려동물 생산·판매·수입업자가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개정을 통해 자가 진료 시행령으로 운영이 가능했던 동물 공장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대한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hansung.ac.kr



▲ 쓰레기로 뒤덮인 방에 일주일 이상 방치된 시베리안 허스키

출처: 동물자유연대



▲ 학대를 받아 두 눈이 실명된 강아지

출처: 동물자유연대

영장 없이도 긴급구조, 현장출동 가능해진다

작년 8월 26일, 동물자유연대는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줄루랄라' 실내 동물원 폐업 현장을 조사했다. 일반적으로 동물원 폐업 과정에서 전시동물의 방치, 불법 판매, 폐사, 동물 학대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기에 '줄루랄라'의 동물들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동물 학대 증거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영장 없이도 현장에 출입할 수 없다. 경찰과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자유연대와 KBS 기자가 현장조사를 위해 '줄루랄라' 대표를 설득했다. 대표가 동의를 한 후에야 동물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물을 보호한다는 동물보호법이 유명무실해지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영장 없이도 현장 출입이 가능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개정안 제 16조에 따르면 동물 학대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동물보호 센터의 직원 또는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동물 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이에 김영환 선임간사는 "현장 출입이 가능해진다는 점은 개정안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현재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를 진행해도 활동가들에게 주거집 입주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바로 출동이 가능해지므로 증거 확보에 용이하다"고 말했다. 현행법과는 다르게 동물구조가 더욱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조항의 핵심이다.

문지수 기자 answltn15@hansung.ac.kr

제빵계의 '까탈레나', 파티쉐 김예슬씨를 만나다.

'거친 손으로 달콤한 디저트를 만들다'

흔히 파티쉐는 낭만적이고 예뻐 보이는 직업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파티쉐는 섬세함과 강한 체력을 요구하는 직업이다.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는 한시도 앉아 있을 수 없고, 생크림이 만들어질 때까지 휘핑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만 하는 창작의 고통까지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자신의 디저트를 만드는 이가 있다. 바로 우리 학교에서 경영을 전공한 졸업생 김예슬 파티쉐다.

케이크 만들기였다. 처음에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선물하며 케이크만들기를 재밌게 배웠다. 하지만 계속되는 과제 때문에 남는 케이크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 날부터 케이크를 팔기 시작했다. 그때 처음으로 케이크를 통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제빵에 더욱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파티쉐가 내길 이라는 생각에 전문가 과정까지 이수했다.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티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녀는 재료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까다롭다. 그녀는 당근케이크를 만들 때, 제주산 당근만 취급한다. 또 그녀의 히트작 '썩양갱'을 만들 때에도 이모가 직접 만든 썩가루가 아니면 안된다. 이러한 성격 탓에 그녀가 만드는 디저트는 품질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 그녀가 창작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디저트를 '먹는 사람'이다. 그녀가 만든 썩양갱이나 홍삼양갱은 사실 먹는 당사자가 분명 했기에 나온 작품이다. 처음 의뢰가 들어 왔던 카페는 '자전거'를 테마로 하는 카페였다. 그녀는 자전거와 관련된 대상을 '아재'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아재들이 좋아할 만한 건강한 느낌의 디저트를 만들고 싶었다. 그때 나온 디저트가 '홍삼양갱'이다. 그리고 지금 이 '홍삼양갱'은 자전거를 테마로 하는 카페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내가 만드는 나의 길
패션에도 유행이 있듯이 디저트에도 유행이 있다. 한동안 마카롱은 어디서든 구매 가능한 제품이었다. 마카롱이 유행이었던 시기에 그녀는 묵묵히 자신이 만들고 싶은 디저트를 만들었다. 뻔한 것이 싫었던 그녀는 뻔한 재료로 뻔하지 않는 디저트를 만든다. 이름부터 독특한 '반포리치', '잠수고 스파클링'이 그 예이다.

작은 습관이 큰 꿈을 만든다
그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책을 읽을 때, 그녀의 습관은 '마음에 드는 구절을 따로 메모 하는 것'이다. 메모를 하는 습관으로 인해, 그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세 개의 노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노트는 아이디어 노트, 두 번째는 작업과정을 메모해둔 노트, 마지막으로는 완성된 레시피를 메모해둔 노트이다. 그녀의 꿈은 그녀의 레시피가 담긴 마지막 노트를 엮어 레시피 책을 만드는 것이다.

파티쉐는 여자들이 즐겨하는 네일아트도 고사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두꺼워지며, 화상을 입을 때도 많다. 하지만 그녀는 아름다운 손을 포기한 대신, 자신의 이름을 내건 디저트를 택했다. 지금 이 시간 그녀는 아직도 레시피를 연구 중이다. 자신의 길을 걷는 라, 상처로 범벅이 된 그녀의 손은 어느 누구보다 아름답다. 달콤하고 아름다운 직업 파티쉐, 그녀의 큰 꿈을 응원한다.

이유정 기자 snm1003@hans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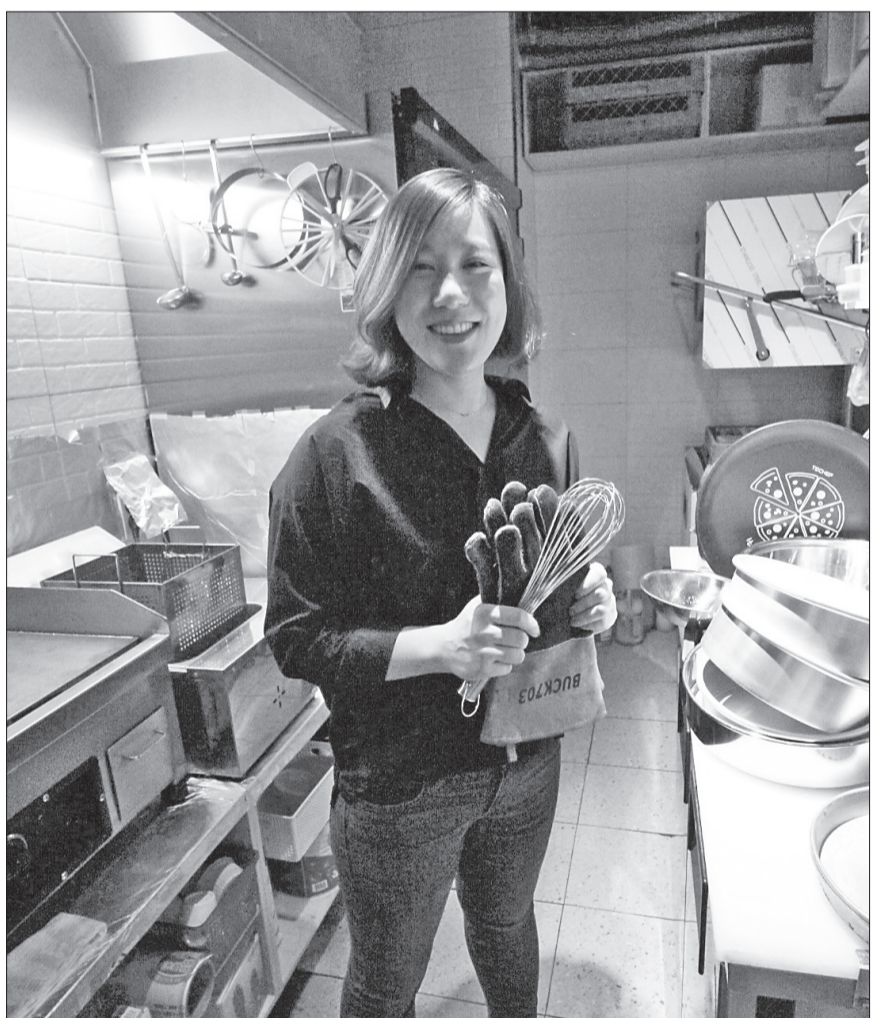
까탈스러운 양갱아가씨

김예슬 파티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맛이다. 어느 날 그녀가 시중에서 파는 케이크를 먹어봤는데 '화가 나는 맛'이었다.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다. 실제로 그녀가 만들고 있는 치즈케이크나 당근 케이크는 까다로운 입맛 덕분에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까다로움은 작품을 만들 때 더욱 빛난다. 그녀는 디저트를 만들 때 재료를 아끼지 않고, 본연의 맛을 살려주면서 누구나 먹고 싶은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케이크를 만들는데 '재료'를 무엇보다

학교에 오래 있는 것이 싫었던 과수석
그녀는 일부터 아침에 수업 듣는 것을 좋아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학교에 있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학교에 있는 것만 싫어했을 뿐, 타 전공을 교양으로 들을 만큼 학구열이 높았다. 그러나 학구적인 그녀를 지치게 한 것은 다른 아닌 공부였다. 학교를 다니는데 있어 휴식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휴학을 결심했다. 그리고 그 휴학기간에 취미로 제빵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학원을 다녔을 때, 매일 해야하는 과제는



한성人SIDE

친구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일

스마트한 한성인을 위한 필수 어플리케이션, 한성대IN어플의 개발자 김희성(정보시스템공학 11) 학우를 만나다.

Q. 한성대IN 어플을 만들게 된 계기는?
A. 처음에는 재미로 가볍게 시작했다. 4학년 때 친구들이 이력서에 필요한 전공 평점을 계산하기 위해 모든 전공 성적을 학점계산기에 대입하는 것이 불편해보였다. 그래서 자동으로 학점계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배포가 용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안드로이드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게 됐다.

Q. 한성대IN어플이 처음에 비해 더욱 안정되어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디자인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 업그레이드 되었나?

A. 초반에는 가볍게 만든 어플이라 문제가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어플을 사용하면서 버그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원하는 기능을 요구하기도 했다. 내가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능이 점차 늘어나고 프로그램이 안정화되었다.

또한, 처음에는 혼자 어플을 개발했다. 어플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우리 학교 재학생인 디자이너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다. 디자이너가 원하는 기능과 프로그램 방식 등을 조언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어플이 점점 발전하게 됐다.

Q. 어플 제작 중에 생기는 고충이 있나?

A. 프로그램 제작 중에 애플

먹었던 것은 시간표 만들기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서버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형식이다. 하지만 학교 측의 지원이 없었다. 게다가 다른 기능에 비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끌어오는 것이 복잡해서 애플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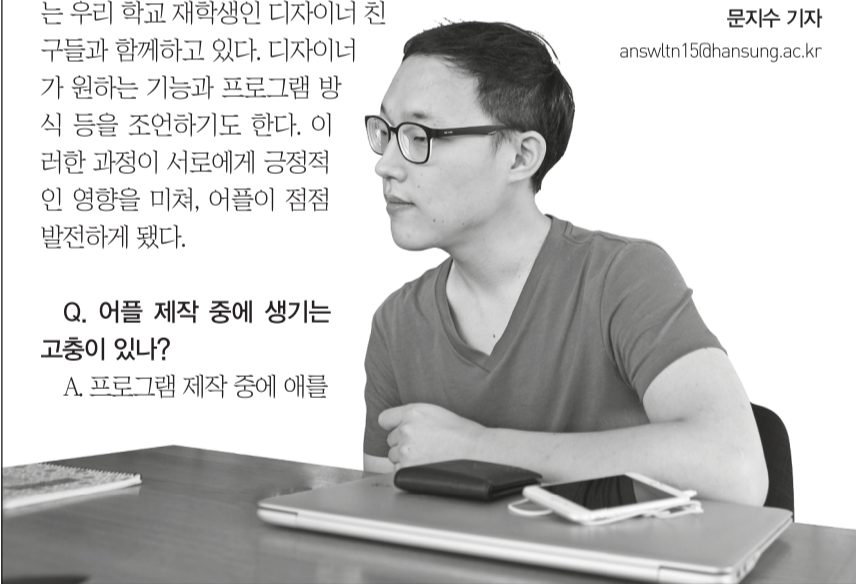
이번에 디자인 로고가 변경되었다. 그 이유는 학교 측에서 공식 어플이 아니므로 학교 로고를 사용해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로고가 들어가는 디자인을 수정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물론 학교의 입장을 이해한다. 학교가 지원하게 되면 어플에서 생기는 문제가 학교의 책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비도 들어간다. 애플에서 한성대IN 어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 년에 14만 원가량의 비용이 든다.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부담한다. 무료 어플이라는 점에서 수익도 전혀 없다. 개인적으로 광고를 삽입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 수익은 바라지 않고 작업하는 중이다. 취미생활에 투자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Q. 앞으로 추가하고 싶은 기능은?

A. 시간표, 공지사항, 바로가기, 3가지 윗기능을 추가할 생각이다. 애플에는 곧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 안드로이드는 개발 중에 있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테마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사용하는 많은 학생들이 어플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문지수 기자
answ151@hansung.ac.kr



한성대신문사 창간40주년 토론탈화

-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3인 1조)
- 진행장소** 상상관 세미나실(본선, 준결승) 및 미래관 DLC(결승)
- 시상내역** 1위 50만원 / 2위 20만원 / 3·4위 5만원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 신문사 보물 증정)
- 진행일정** 예선접수 9/19(월) ~ 10/25(화) 오후 7시
예선심사 10/26(수) ~ 31(월)
본선심사 11/3(목)
준결승전 11/10(목)
결승전 11/17(목)

- 예선참가방법**
- 참가신청서 / 발제문(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제출
- 신청서, 토론주제, 본선 진행 세부사항은 교내홈페이지 '한성공지', 한성대신문사 블로그에 공지
- hansungnews@gmail.com(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hansungnews@gmail.com
박종민 편집국장 010-6425-4852, toad1013@naver.com
한성대신문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hansung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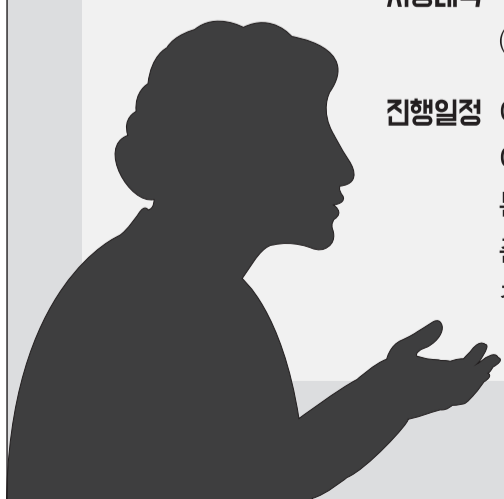




사진 출처: wikipedia

우리가 몰랐던 달의 이면들

우리나라에는 추석날 밤, 달을 보고 달집을 태우는 풍습이 있다. 사람들은 웅기종기 모여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한다. 이들에게 달은 항상 밤을 밝혀주는 신이며, 하나의 인격체다.

하지만, 달이 지구의 위성이라는 것이 밝혀진 지금, 인류에게 달은 더 이상 주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에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되고 있다. 인류가 달에 도착하면서 달은 인류 진보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과연 지금까지 과학은 달의 이면들을 얼마나 많이 포착했을까?

지구의 위기로 형성된 달

달의 탄생에는 많은 가설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달 탐사 성공과 더불어 달의 탄생 과정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이 등장하면서, '거대충돌설'이 가장 유력한 가설이 되었고, 나머지 가설들은 사장되었다.

'거대충돌설'은 지구에 다른 화성 크기의 거대한 별이 충돌하면서 떨어져 나온 지구의 표면 조각이 달이 되었다는 가설이다. 이에 따르면 당시 지구는 엄청난 충격에 산산조각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지구의 크기가 더 성장하고 달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설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은, 달의 성분과 지구 표면의 성분이 비슷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구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덕에 달의 중심에 무거운 물질이 별로 없다는 것도 밝혀지면서,

'거대충돌설'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되었다. 이강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은 "월석의 크기 대비 무게와 비교해서, 달의 크기 대비 무게가 별로 크지 않다. 때문에, 달의 내부에는 무거운 물질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원리를 설명했다.

점점 멀어져가는 달

동양에서 태양과 달은 각각 '양'과 '음'의 상징이다. 달과 태양의 크기를 생각하면, 같은 급의 상징물이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공교롭게도 이 둘이 똑같은 크기로 보이는 위치에 달이 있기 때문에 달과 태양은 동등한 상징물이 되었다. 하지만 인류가 출현하기 전에는 달이 태양보다 훨씬 크게 보였다. 달이 지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달이 멀어지는 이유는, 지구와 달의 인력 때문에, 양쪽의 자전 속도가 모두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전속도가 줄어들면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서로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관장은 "이 법칙은 어떤 회전체의 질량과 속도, 반지름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는 물리학 법칙"이라며, "지구와 달의 자전속도가 줄어들면 두 물체의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반지름에 해당하는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달은 1년에 38mm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발생하

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달이 지구의 영향권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주과학의 전초기지

인류가 달에 도착하고 위와 같은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달은 더 이상 신비하지 않은 존재, 정복된 존재가 되었다. 물론, 오늘도 달은 지구의 든든한 우방이지만, 과거처럼 베일에 싸인 매력은 없어져버렸다. 현재 학계에서 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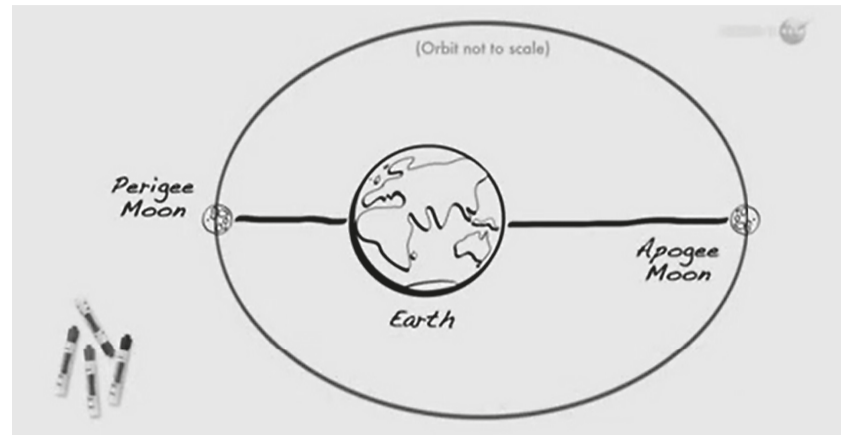
이 관장은 "달은 천문학의 영역에서 제외되었지만, 우주과학 연구에 있어서는 중간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가볼 수 없는 천체와 현상을 다루는 천문학과 달리, 우주과학은 우리가 실제로 갈 수 있는 곳까지를 다룬다. 달에 전진기지를 설치하면 태양계와 우리 은하에 대해서 더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주과학에서 달이 중요한 위치로 올라서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달은 계속 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달에 대한 사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달의 의미도 점점 변화해간다. 과연 앞으로의 달은 또 어떤 이면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까?

박종민 기자 toad1013@naver.com

오늘의 강연 NASA@SCIENCE, '슈퍼문'에 대한 불편한 진실'

악운을 부르는 동그라미?



▲ '슈퍼문'에 대한 불편한 진실' 중 근지점과 원지점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다.

보름달은 불행을 부른다는 괴담이 있다. 하늘에 보름달이 뜨면 병원의 입원율이 증가하고,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며, 암 전하던 개가 짖기 시작하고, 멀쩡하던 사람이 이상해진다. 이런 소문은 지방의 토속신화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중세시대부터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았다. 과연 사실일까?

위 영상은 'science@nasa'에서 만든 3분 내외의 영상으로, 보름달과 관련된 소문의 진실과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영상은 슈퍼문을 '근지점 달'이라 말하며, 이 현상이 생기는 이유를 이론을 통해 말해준다. 또한 달이 평소보다 크게 보이는 '달 착시현상'을 추가로 다루어 '슈퍼문'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영상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일러스트레이트를 적절히 사용해 근지점, 원지

점, 타원궤도 등의 어려운 이론을 쉽게 설명한다. 그 외에도 일러스트레이트는 자세한 이론 설명이 필요할 때 종종 등장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3분 내외의 영상이라 하여, 영상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영상은 내용 전개 과정에서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 연구단체들을 제시해, 영상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달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은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소문의 진실 여부가 궁금하다면, 본 영상을 참고해보자.

박혜미 기자 hnm1324@naver.com



날씨에 대한 이해, 선택이 아닌 필수



알수록 재미있는 날씨 이야기

저자: 게르하르트 슈타균
출판사: 옥당
출판일: 2016.05.06
책소개: 『알수록 재미있는 날씨 이야기』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상현상에 대해 과학적 원리를 통해 설명하는 책이다. 이를 통해, 이 책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상현상의 예시들을 분석하고 있다. 기상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복잡한 수식과 공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일기예보를 확인한다. 날씨는 인간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가령, 비가 오는 날에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사람들의 불쾌지수가 높아진다.

저자는 이처럼 사람들이 날씨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왜 이러한 기상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다.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날씨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별로 없다. 한 예로, '한국에서 장마는 왜 발생 하는가'와 같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날씨 현상에 관한 기초 질문에 선택 대답하지 못한다.

이러한 저자의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이 책은 독자에게 기상현상에 관한 원리를 제공한다. 책은 총 1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챕터마다 기상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원리를 담고 있다. 이 원리들은 챕터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독자들은 순차적으로 원리를 학습하게 되며,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상현상의 원인을 총체적으로 파악한다.

이 책의 대상은 기상현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이다. 따라서 저자는 어렵고 복잡한 기상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구에 바람이 부는 이

유를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어렵고 복잡한 수식과 공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책에서는 이와 같은 기상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독자가 떠올릴 만한 평범한 답에 과학적 원리를 더해 이를 설명한다.

이 책이 가지는 최대의 장점은 독자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현상을 원인을 다룬다. 사람들은 수십 년간 규칙적으로 반복되어왔던 기상현상의 예외 현상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독자들이 이전 챕터에서 학습한 과학적 원리에 입각해서,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오존층 파괴로 인한 일부 국가의 침수와 같은 내용을 과학적 원리를 통해 살펴본다.

인간에게 기상현상은 삶의 일부다. 인간은 기상현상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지만 기상현상을 이해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상기후의 증가는 일부국가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상현상에 대한 이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

유동현 기자 ehdv6392@hansung.ac.kr

'오보청'이 된 기상청, 문제는 연장이 아니다

기상청의 잇따른 예보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상선진국인 영국과 일본은 그들 국가의 가장 뛰어난 슈퍼컴퓨터를 기상청으로 보낸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슈퍼컴퓨터일까? 하지만 관측위성과 슈퍼컴퓨터를 포함하는 우리나라의 기상인프라는 이들 국가들과 비교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상학에 대해 알아야 한다. 기상학은 대기운동을 분석·예측하는 학문으로, 기상청에서 기상학에 따라 도출된 결론이 TV나 인터넷으로 송출되어 일기예보가 된다. 최근 이상폭염과 소나기 등으로 일기예보가 주목받고 있지만, 기상청의 예보가 변변히 빗나가는 것도 기상학적인 계산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홍성유(연세대학교 대기과학

과) 교수는 "관측이 아닌 예측의 실패"라고 답변했다. 일기예보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관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홍 교수에 따르면 관측을 통한 기상예측은 관측 후 3시간에 불과하다. 일기예보는 단순 관측이 아니라 이러한 관측사실을 토대로 수치예보모델이라는 기상학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이 이루어진다. 즉, 최근의 일기예보가 빗나가는 것은 관측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예보모델의 문제인 것이다.

기상학에서 '수치예보'라고 불리는 이런 방식의 예측은 1904년, 기상학의 아버지인 빌헬름 비야르네스가 "7개의 방정식과 7개의 미지수가 있으면 기상예측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당시엔 비행기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류권 상부의 관측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류가 최초로 기상예측에

성공한 것은 1950년에 이르러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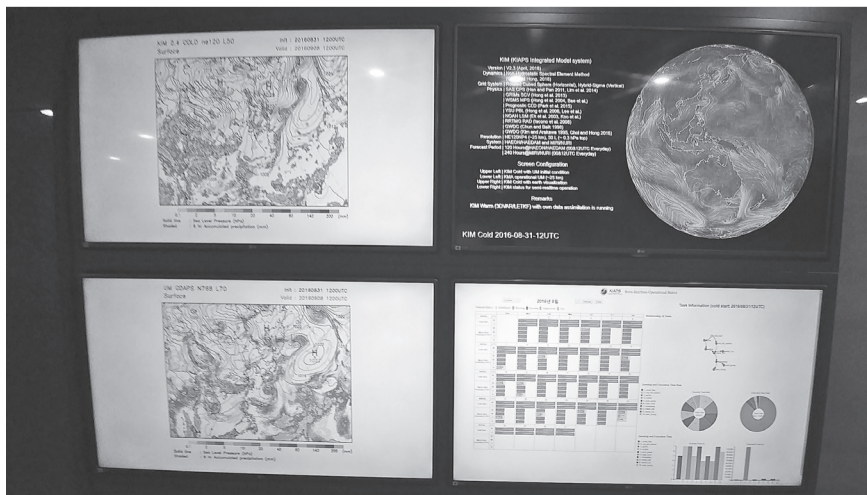
이렇게 출현한 초기의 기상예보는 고작 이틀 뒤까지가 한계였으나, 지금은 7일 뒤의 예보 정확도가 75%에 육박한다. 이 과정에서 지난 수십년동안 해당국가의 오존, 가스, 마찰, 난류, 식생, 해양 등의 기상 변수를 관측하여 예측 알고리즘으로 만든 것이 바로 '수치예보 모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국의 '수치예보 모델'을 기상관측모델로 사용하는데, 최근의 예측실패도 이와 연관이 깊다.

'수치예보'는 에드워드 로렌츠가 발표한 '카오스 이론'에 따라 초기수치라고 불리는 관측값에 매우 민감하다. 즉, 영국의 기상상황에 맞춘 수치모델은 한국에 적합하지 않고, 때문에 '예보관'이라고 불리는 최종전달자의 경험에 따라 기상예보의 정확성이 결정된다. '영국의 수치예보모델'은 국내 최고의 슈퍼컴퓨터라도 정확한 결과값을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2019년까지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도입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한국형수치예보 모델이 개발되면 최근 85%까지 떨어진 예보적중률이 다시 90% 중반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홍 교수는 "데이터센스 계약으로 개선이 불가능했던 기존의 모델과는 달리, 지구온난화로 변화되는 한국의 기상상황에 맞춰 꾸준한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의 개발로 기상청이 '오보청'의 오명을 벗고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기상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기상관측자료 화면이다.

의화정

올해 병장 월급이 197,000원이라는 뉴스를 듣고 오래 전 내 군복무 시절이 떠올랐다. 1980년대 병장월급이 4,500원이었으니 지금은 20배 이상 오른 셈이다.

게다가 당시에는 군복무 기간이 30개월이었는데 지금은 21개월로 줄었다. 월급도 많이 오르고 복무기간도 많이 짧아졌으니 '이제 군대 갈만 하네' 하는 생각이 드는 차이에 두 가지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하나는 '과연 이 월급 받고 군복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구성된 군대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하는 것이었다.

군인이 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입대한 사람들로 구성될수록 그 군대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빨리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전문성도 높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징병제를 실시한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 징병제는 분단국가로서 충분한 병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적은 국방예산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었다. 헌법 제 39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당위론도 징병제를 뒷받침하는 중요 명분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다. 오늘날의 국방력이 과연 병력 수와 비례할까? 징병제가 정말 비용이 덜 들까? 다양한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을 의무적으로 군대에 보내는 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일일까? 무엇보다도 지금의 병역제도로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등의 의구심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모병제가 주장되는 것은 우리나라 병역제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과 국방력을 규정짓는 상황이 달라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모병제로의 전환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병역제도는 나라의 근간이므로 선불리 다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기왕에 공론장이 만들어진 만큼 과연 어떤 제도가 국방의 기틀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젊은이들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천년대계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하는 작업이 모든 국민들의 관심 속에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윤경준(행정학과) 교수

병역제도에 대한 단상

삼 학 송

'개혁'이라는 공허한 메아리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모두 공개되었다. 우리학교처럼 '완전해제'로 평가를 받아서 만족하는 학교도 있지만, 계속된 '전면제한'이라는 결과를 받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 어쨌든 교육부가 기획한 1주기 구조개혁은 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과연 교육부가 말했던 '개혁'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애초에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이뤄진 이유는 출산을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다. 대학 정원이 똑같이 유지되는 경우 2018년부터는 정원보다 신입생이 적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원도 줄이고 이에 따라 지원금도 줄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학별로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취지다.

문제는 교육여건이나 학사관리, 학생 지원 등 대학의 교육수준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성과라는 이름으로 취업률까지 평가항목에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런 항목들에 대한 반발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교육부는 이를 강행했다. 게다가 1단계 지표에 이 항목들을 넣고 여기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학교들에게 D-E등급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성과를 높일 것을 강요했다.

이번에 나온 교육부 컨설팅은 이렇게 D-E등급을 부여받은 학교들이 다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여기 속한 대학들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것들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방침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대부분 대학들은 학사 구조개편 등 기존의 교육과정을 폐기하

고, 새로운 방식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기초과학, 인문학, 예술 등은 교육과정이 축소되거나, 개념이 희박해졌다.

우리학교에서 단행한 학사구조개편만 보더라도 인문학과와 예술학부가 한 카테고리에 묶여있고, 디자인대학이 떨어져 나와 있다. 수시모집 정원 역시 공과대학이 압도적으로 높다. 인문대학과 예술대학이 각각 우리학교의 한 축을 차지했던 과거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순수학문들이 죽어가고 대학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이제는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교육부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과 지원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실로 대학을 입맛대로 조정하고 있다. '개혁'이란 그들에게 그런 의미다. 하지만 어떤 개혁도 결국 외압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개혁을 강요하는 것은 급작스런 변화만을 초래해서 구성원들의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제대로 된 개혁은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논의와 협의가 쌓였을 때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2017년에 또 다른 평가가 있을지 모른다고 학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이번엔 전면제한 평가를 받은 대학들이 퇴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교육부의 외압만 가득한 대학가의 모습 속에 '개혁'이라는 단어가 참 공허하다.

박종민 편집국장

기자수첩

작년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혼란이 가장 극심했던 작년 말, 총학생회가 건설되었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약들을 통해, 총학생회는 당시 혼란에 빠진 학생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대변할 듯 했다. 그리고 손성민(경제 4) 총학생회장은 한성대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서로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겠다"며 '대학평가후속계획 공개'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총학생회의 공식적인 임기가 시작된 후 약 6개월이 흐른 현재, 학교와 학생 사이에선 단 한 번의 소통만이 있었다. 바로 지난 학기에 진행되었던 학사구조개편 1차 간담회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들을 공개해서 학생들을 혼란에 빠트리려고 싶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본교에서는 이번 학기의 시작과 함께 상상관을 완공했다. 그리고 "상상관을 통해 본교를 학생들이 STAY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학교 측은 기자들이 학사구조 개편안이나 대학평가후속계획에 관하여 물으면, "확실하지 않은 사항들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만 답한다. 때문에 학생들은 학생회와 학교, 어느 쪽을 통해서도 학교가 변화할 방향을 알 수 없다. 전부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학교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학생들은 '언제쯤 어떤 사항이

확정될지'조차 알 수 없다. 이러한 무방비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변화를 마주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와 총학생회는 최소한 어떤 사항에 대해 협의 중인지, 어떤 선택지를 고려중인지에 대해 알려야 한다.

애초에 학교와 총학생회가 학교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 알리는 것은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공약으로 내세워 단순히 공약 이행에 미진했다고 넘어가는 총학생회의 태도는 잘못됐다. 또한 기자들의 취재에 '미정된 사항'이라며 답변을 꺼리는 학교의 태도는 소통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 소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재고해 볼 시점이다.

유은강 기자

소통인가 불통인가

낙산에 올라

"여러분들 나이면 뭐든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접하곤 한다. 이미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다. 이들은 TV 또는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서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곤 한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들이 진정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선 한 번 따져볼 일이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필자에게 이런 메시지들은 너무나도 달콤했다. 필자 또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와 일들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뭐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충실히 받아들인 뒤에 오는 것은 결국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강한 무기력함과 회의감이었다.

우리가 보통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바라보는 목표는 보통 한 분야에 오랜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의 결과다. 공부든, 예술이든, 사업이든, 프로젝트든 시작할 때 그 분야에서 이미 두각을 나타낸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곤 한다. 우리는 잘하고 싶지, 적당히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의 일도 제대로 해내기 힘든 것이 인간이다. 때문에 뭐든 잘 해내려 한다면 결국 어느 한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기가 어렵다. 결국 뭐든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답답한 환상이 산산조각 난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자신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뭐든 잘 할 필요는 없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렇기에 필자는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알고 노력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노력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넌 할 수 있어"가 아닌 "넌 이걸 못하고, 이걸 잘해!" 라는 말이 더 올바른 말이 아닐까?

이현우(무역 2)

"넌 할 수 있어!" 이제는 그만.

낙산만평

박종민(한국어문 3)



한성대신문

제 31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기간 2016년 9월 19일부터 ~ 10월 17일 오후 7시까지 ✓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 주제 자유(주제에 제한이 없음) ✓ 제출형식 소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 : 5편 이상 ✓ 제출방법 hansungnews@gmail.com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 제출사항 응모작 /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한성공지'에서 다운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한성대 신문 519호(11월 28일 발행예정) ✓ 시상내역 단편소설 : 60만원 및 상패 시 : 40만원 및 상패 ✓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박종민 편집국장 010-6425-4852 ※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른 공모에 입상, 발표 사실이 없는 순수창작물만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투고, 대필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상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상금을 몰수합니다. 또한 저작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당선작이 없을 시 가점만 시상합니다.
---	--

인디문화의 매력,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대, 혹시 '취향저격 아이템'을 찾아 방황하고 있지 않은가?

바야흐로 개성의 시대. 인디음악과 인디 게임 등 수많은 인디의 범람 속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존재가 있다. 바로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디어와 멋져진 디자인의 제품들이 도전장을 내미는 '크라우드 펀딩'이 그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최근 인디문화의 구세주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소비방식이다. 지금부터 단돈 만 원으로 당신만의 '독템'을 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 '메이커스 with 카카오페이'에서 판매된 앞치마로 변신하는 가방 출처: 다음카카오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느리게

'빠름 빠름 빠름~' 모 통신사 광고처럼, 우리 민족은 외국인들이 낮을 옳고 바라보게 되는 '배달의 민족'이다. 최근에는 익일 배송과 당일배송을 넘어 로켓배송까지 등장했다.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은 오히려 '느림'으로 차별화를 추구하여 역주행을 시도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제품은 기다림의 미학으로 표현될 수 있다. 기자는 취재를 위해 직접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물품을 구매해보았다. 100개, 200개... 주문량이 목표치를 향해갈수록 기자의 기대감은 점차 커져갔다. 만약 주문량이 적을 경우, 제품 제작은 취소되고 결제 금액은 전액 환불되기 때문이다. 마침내 주문량이 목표치를 넘어섰고, 기자는 환호성을 내질렀다. 아마 그와 동시에 판매자는 제품 제작을 시작했을 것이다. 나와 같은 상품을 구매하려는 '동료'를 모았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는 더욱 긴 제품 제작 기간이라는 고비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기자의 경험 상, 기다림은 곧 기대감이었다. 수시로 '구매현황' 창을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기를 몇 번. 긴 기다림 끝에 만난 '물건'은 더욱 더 애착이 갔다. 시계장인이 만든 롤렉스 시계만큼은 아니겠지만, 도착한 물건은 한뼘 한뼘 정성이 들어간 티끌없는 '진짜'였다. 언제까지 창고에 처박혀있던 나온 양산품에 만족하고 있을 것인가. 기자의 대답은 '오직 크라우드 펀딩'이다. 마지막으로 유경함자로서 크라우드 펀딩에 관심을 가질 독자께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기다림 지어다. 기다리는 자에게 득템이 있나니.'

내 안에 스토리가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장인들의 웰메이드 제품들이 매일 칼부림을 벌이는 온라인 마켓트의 무림강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곳에서 살아남아 후원자들의



▲ 웹툰 '진돌만화'에 등장한 캐릭터에서 착안한 '진돌쿠션' 출처: 텀블벅

눈에 띄려면 남들과는 다른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누가 말했든, 중요한 것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라고.

최근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외면보다는 내면을 바라보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한번 유명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텀블벅'에서 진행된 '진돌쿠션' 펀딩을 살펴보면 하자. '진돌쿠션'이란 '진돌만화'라는 웹툰의 캐릭터에 착안한 쿠션이다. 단순한 개의 머리모양을 한 이 쿠션은 자그마치 4천만원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성황리에 펀딩을 마칠 수 있었다. 이 단순한 쿠션의 인기 원인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바로 '진돌만화'라는 웹툰이 가진 가치 때문이다. '진돌만화'는 '레진 코믹스'라는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일상계 그 만화다. 비록 네이버 웹툰에 비해 미미한 플랫폼의 마이너한 웹툰이지만, 이 웹툰의 담긴 의사가 쿠션의 가치를 심분 끌어올린 것이다.

'김계장 원작만화 단행본' 펀딩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김계장은 유명 커뮤니티에서 연재되던 웹툰의 작가로, 그림이 투박한 수준을 넘어 조악할 정도지만 크라우드 펀딩에서 승전보를 올렸다. 이는 그 웹툰의 독특한 스토리 센스가 컬트적인 인기를 구가했기 때문이다.

크라우드 펀딩에는 예쁘고 멋진 디자인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하는 제품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스크롤을 내려보는 것은 어떨까. 당신에게 운명을 속삭여줄 '인생템'과 마주할지도 모른다.

아이디어만으로 세상을 바꿀 물건을 만들 수 있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상품화할 수 있는 곳이 크라우드 펀딩의 세계다. '번치 오 벌룬(Bunch O Balloon)'은 텍사스에서 8명이나 되는 자녀들에게 물풍선을 만들어줘야 했던 비운의 아버지 조쉬가 착안한 물건이다. 한꺼번에 무려 37개의 물풍선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 물건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익스타터'의 문을 두드렸다. 그의 물건은 익스타터에서 수많은 아버지의 심금을 울리며 무려 84만 달러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 공중부양 화분 'LYFE' 출처: 익스타터

이외에도 식단과 운동량을 자동으로 체크해주는 벨트, 줄 없는 기타, 공중에 떠있는 화분..... 도라에몽 주머니에서 나온 듯한 아이디어 상품들은 통장잔고를 잊게 하는 최면을 건다. 이들 상품은 대부분 조쉬와 같은 일반인의 아이디어가 실현된 것이



▲ '번치 오 벌룬'을 사용하는 아이들의 모습 출처: 익스타터

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위해 후원자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있다.

평범한 물건들이 질렸다면 이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크라우드 펀딩'은 당신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세계로 이끌어 줄 것이다.

(문화부)
일러스트 : 김지영(시각영상 2)



차가운 마음에 감정의 바람이 불다

우리는 극악무도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다'라는 말을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도덕심', '수치심',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등과 같은 인간다운 감정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감정이 부재할 때,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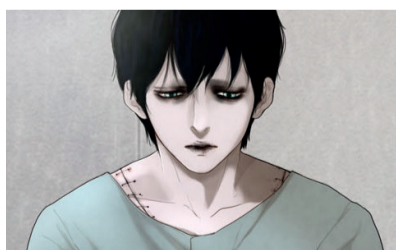
위와 같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은 인문학의 시발점이다. 인문학



▲ 네이버웹툰 '윈터우즈'

은 우리 삶의 근간이지만, 우리는 '인문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인문학은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이버웹툰 '윈터우즈'는 연애물이라는 장르에 인문학적 요소를 녹여낸다. 따라서 독자들은 웹툰을 보면서 쉽게 인문학에 다가간다.

웹툰의 주인공은 시체를 엮어 만든 인간형상을 한 괴물이다. 연금술사는 수많은 실험을 거쳐 이 괴물에게 '감정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는다. 수세기가 흐르고 독일의 과학자들은 '괴물이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동화작가 제인과 같이 살게 한다. 괴물의 마음속에는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괴물은 감정표현이 다채롭고 다정한 그녀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간다. 제



▲ 쫄비처럼 묘사된 '윈터'

인은 이 괴물에게 '윈터우즈'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윈터우즈는 자신을 인간처럼 대해주는 그녀에게 사랑에 빠진다. 그녀 또한 자신을 걱정해주고 보살펴주는 그에게 애뜻한 감정을 가진다.

윈터우즈는 '인간'의 조건을 갖추었다. 그는 타인을 사랑하고 걱정하며, 누군가 자신의 웃을 벗기려고 할 때 수치심을 느낀다. 동시에 그는 감정이 생기면서, 살을 껴맨 상처 또한 아물기 시작한다. 또한 작



▲ 변한 모습의 '윈터'

가는 작화를 통해 이 변화를 드러낸다. 작가는 그가 감정이 없었을 때는 그를 장백한 쫄비처럼 묘사한다. 하지만 윈터우즈가 감정을 쌓아가면서, 그의 몸과 얼굴을 그리는 방식이 변한다. 그의 얼굴을 가득 채웠던 다크써클은 없어지고 얼굴에는 생기가 돈다.

하지만 독자들은 여전히 찻찻하다. 왜냐하면 독자들은 '윈터우즈는 인간인가'에 대해서 답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윈

터우즈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 졌다. 끔찍하게도, 그의 몸과 얼굴은 각기 다른 사람의 팔, 다리, 몸통, 얼굴이다. 현대 사회의 공장에서 인간이 인형을 조립하듯이, 연금술사는 윈터우즈를 조립했다. 따라서 독자들은 생각한다. '이 인형에 감정이 깃든다고 해서 인간이 될까?'

독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할 때, 그들은 인문학에 한 발자국 다가간다. 동화를 쓰기 위해 흥미로운 소재를 찾는 제인,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윈터우즈가 만나면서 그리는 사랑 이야기 속에는 인문학이 녹아있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웹툰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문학적 사유를 한다. 쉬운 인문학, 이 속에 녹아 있다.

유동현 기자 ehdk6392@hansung.ac.kr
사진 출처 : 네이버웹툰